

흰 돌

이 명 직 목사(1890. 12. 2~1973. 3. 30)는 한국성경교회 사부로 존경받으시는 분입니다.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. 본 란을 통하여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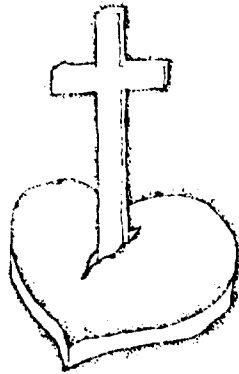
“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” (계 2: 17).

30 경에서 우리는 한 사건과 물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의미로 설명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이는 서로가 모순되는 것 같다. 즉 예를 들면 사자(獅子)를 어떤 경우에는 마귀로 비하여 말하였고(벧전 5: 8),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에 비하여(계 5: 5) 말하였다. 이와 같이 흰 돌에 대하여서도, 돌을 죄의 한 모형으로 비하여 말하였고(겔 36: 26),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, 주님은 산 돌, 보배로운 돌, 집 모퉁이에 머릿돌(벧전 2: 4-7)이라 하였다. 그러므로 본문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흰 돌은 곧 우리

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.

요한 계시록에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많이 있다. 그 중에도 생명과(生命果), 생명의 면류관, 새벽 별, 흰 옷, 새 이름, 보좌, 생명수도 있으나, 본문에 약속하신 흰 돌은 모든 약속하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.

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 할 때에는 생명의 주되심을 가르치지만, 흰 돌이라 함은 성결하신 주님 되심을 나타낸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나, 방언의 은혜나, 그 외의 주시겠다 하심보다 곧 생명의 주와 성



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터인데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돌되신 그리스도를 주시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(엡 2:5),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곧 우리의 사죄의 증거이다.

결의 주를 직접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? 그러면 이 흰 돌을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가? 우리는 이 증거에 대한 영적인 교환을 받고자 한다.

사죄의 증거

옛날 서양 풍속에, 두 사람이 재판소에 가서 시비를 가지고,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는 중에 재판장이 피고의 무죄함을 드러나게 되면 재판장은 그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흰 돌을 주어서 훗날에 다시 그 분제에 대하여 재론되지 않게 하였다.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흰 돌이 생명과 순결 무죄한 증명이 되는 것이다. 이와 같이 우리는 다 피고가 되어서 하

그러면 우리가 사죄의 흰 돌을 어떻게 받는가? 믿음으로 받는다.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아가 설 때에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음은 이 흰 돌을 가졌기 때문이다. 우리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신다. 가버나움에 죄 지은 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"네 죄를 사하였다" 하심으로, 그 죄 사함을 진히 증명하셨다. 이는 곧 흰 돌을 받음과 다름없다.

우리도 이와 같이 명백한 사죄의 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다.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함으로써, 또는 교회 규칙을 잘 아는 것으로, 또는 세례 받는 것으로서 흰 돌을 받는 것은 아니다.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흰 돌을 내어 놓으라 하실 날이 올 것인데, 아직 흰

우리는 다 피고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터인데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돌되신 그리스도를 주시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(엡 2:5).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다.

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”(롬 8:37) 하신 승리의 생애라 할 수 있다.

돌을 받지 못한 형제여 속히 흰 돌을 준비하시라.

능력과 승리

우리 신자들은 마땅히 능력이 있어,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생애를 보내야 할 것이다. 이 세상과 마귀와 죄악의 세력은 날로 강하여져만 가는데, 우리의 능력이 약하면 어떻게 완전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생애를 보낼 수 있겠는가?

우리에게 있는 흰 돌은 참 능력과 승리를 의미한다.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에 골리앗과 같이 갑주나 창검을 의뢰하지 않고, 오직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흰 돌 다섯 개를 주워가지고, 그 중에 한 개를 던져 골리앗의 두골을 깨뜨려 승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니, 이 흰 돌 다섯 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라 하겠다. 또 돌 다섯 개 중 한 개로써 승리하고 네 개가 남았으니, 이는 “우리를 사랑하시는 이

청년 요셉은 악한 여인의 무서운 유혹을 직접 받았으나, 사자와 같은 용맹으로써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으니, 이는 곧 요셉에게 있는 흰 돌, 곧 성결의 능력이다. 성결의 능력이 아니면 누가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는가?

또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, 죄를 범치 않으심은 그의 천성이 성결 무죄하셨기 때문이다.

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 다윗과 죄악을 이긴 요셉과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과 같은 능력있는 용사로서 승리의 생애를 보내려면 흰 돌을 받아야 한다.

혼인의 약속

흰 돌을 받은 것은 곧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라 할 수 있다. 옛날 막대한 시대,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편리하지 못한 때에 멀리 여행을 하려면 아주 어려운 것은 여관이 없고, 몇 백리 여간에 인가(人家)가 없는 광야

“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오직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느니라” 하셨다. 우리의 사죄함을 받은 것이나 성결함을 받은 것이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것이다.

와 산골이 많았기 때문이다. 이와 같은 경우에 혹 인가라도 만나면, 부모의 집을 만난 것보다 더 반가워서 하루 밤이라도 숙식을 하게 되면, 한 평생에 잊어 버릴 수 없는 은혜라 하겠다.

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인가에서 하루 밤을 숙식하고 떠나는 때에는 서로간에 정표(情表)로 흰 돌을 깨뜨려 서로 주소 성명을 기록하여 나누어 가지고 지내다가 살아서 만나든지, 그 후 자손끼리라도 만나면 서로 간에 영접하여 은혜를 갚은 관습이 있었다.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시는 것은 재회의 약속이다.

이 흰 돌을 어느 곳에서나 내어 놓으면, 주께서는 모른다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. “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” (요 1 : 12), 우

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그의 형상을 이루면 그가 나타나는 날에 그의 참 모습을 볼 터인데 “거룩하지 않으면 (흰 돌이

없으며) 주를 뵈지 못할 것이다” (히 12 : 14) 하였으니, 우리는 과연 주님으로 부터 공중에서 혼인할 약속의 증표가 되는 흰 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.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이 흰 돌을 받을 만한 가치 없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.

그런데 “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오직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느니라” 하셨다. 우리의 사죄함을 받은 것이나 성결함을 받은 것이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것이다. 우리가 이 흰 돌을 받은 동시에 새 예루살렘, 새 생명록에 우리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은 (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증거)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와 영광인 것이다. <이 설교는 이명적목사의 설교집 제6권에 있는 것을 본지 발행인 홍순균목사가 현대적인 어법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>

307